민족문화연구 제87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7호에는 총 13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학 2편, 어학 4편, 철학 2편, 역사학 4편, 사회학 1편으로 나눌 수 있고, 시대별로는 고려시대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거의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논문이 수록되었다.

박윤진은 승려에게 국가가 하사한 공적 지위로서의 기능을 했던 고려 전기 법호(法號)의 사용과 그 운영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 전기의 법호가 대사(大師)라는 직함과 법호를 하사했던 중국의 '사호(師號)' 제도와 관련되어 있지만, 고려의 독특한 제도인 승계(僧階)와 결합하여 법호와 승계를 연칭했다는 점에서 고려만의 특징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또한, 승계와 승직은 그 수와 등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속 부여할 수 없지만, 법호는 여러 차례 하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승려의 공적 지위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법호를 누적해서 부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문현수는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자료인 진본 『화엄경』 권20의 미해독 구결점을 해독하고 있다. 저자는 구결점을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것과 연결어미 '-며'와 관련된 것, 조사와 어미에 쓰인 '-과'와 관련된 것, 부정문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사례를 분석해 실증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해독되지 못하거나 해독이 되었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구결점에 대한 해독의 방법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진본 『화엄경』은 물론 여타 구결 자료 해독에도 일정한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여채려는 『서경잡기』·『가정적성지』·『본초강목』·『성소부부고』·『부상록』·『동사록』·『증보산림경제』·『송남잡지』 등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고려후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자두[紫桃]'의 어휘사를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자두'라는 용어는 고려후기에는 한자어 '紫桃'의 축자적 의미인 '자주색 복숭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15세기에 들어 자두의 하위 품종인 紫李의 속칭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19세기 말에 한국 자두와 의미적 유사성이 있는 서양 자두가 수입되고 개량종 자두의 재배량이

증가하면서 자두류의 통칭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김갑동은 공민왕 초기의 반원정책과 관련하여 고려말의 무장 인당(印璫)의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인당은 충혜왕대부터 사료에 보이긴 하지만 특히 공민왕 초기 반원개혁과 영토수복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그런데 서북면 공격의 책임을 맡았다가 갑자기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가 왜 희생당했는지, 공민왕대의 정국 상황과 개혁 정책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공민왕 집권 초기 무장으로서의 인당의 활동을 요약한 후, 공민왕 5년의 개혁 및 영토 수복과 관련된 인당의 역할과 희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궁금증에 답하고 있다.

문상련은 명종대 선과(禪科) 복원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승려 선발제도인 도첩제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점검하면서, 중종대에 폐지되었던 승려선발제도가 문정왕후의 후원에 힘입어 명종대에 다시 선과(禪科)라는 이름으로 복원되고, 문정왕후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혁파되는 과정 및 선과(禪科)의 시행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명종대 선과(禪科) 복원 과정은 물론 조선 시대 승려 선발 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그 선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전성건은 성호 이익의 대표적인 예서(禮書)인 『가례질서(家禮疾書)』와 『성호예식(星湖禮式)』을 분석하여 그 특징적 면모를 서인가례의 창출로 인식한다. 이익은 『가례』를 근간으로 작성된 예식을 사대부의 예식으로 규정하고, 특히 『성호예식』에서 서인 신분의 예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분질서에 맞는 검소한 가례 서물을 작성하고 있다. '신분에 맞는 예제의 실행'과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을 지향하는 이익의 예설은 향촌 사회의 일반 백성들도 지속적인 의례 실천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교적 예제질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민정은 『심리록(審理錄)』·『추관지(秋官志)』·『흠흠신서(欽欽新書)』의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성범죄의 재판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판례에 따르면, 당시 국왕과 관료들은 '차미(옷깃)를 당기거나 밥상을 마주 대하는[挽裳飯對]' 수준의 행위를 간통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인들이 이를 강간으로 인식하고 자살을 택하더라도 해당 수위의 행

위를 처벌할 만한 법조문이 없다고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저자는 18세기 국왕과 관료들의 이러한 모순된 성 인식을 지적하며 이것이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추는 역사적 자화상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철호는 메이지시기 일본의 지리학자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일본지지략(日本地誌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메이지 시기 일본의 독도 인식을 추론하고 있다. 저자는 오쓰키 슈지가 『일본지지략』을 편찬하면서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일본지명자인(日本地名字引)』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한다. 또한 『일본지지략』이 일본 문부성이 개정·발행한 최초의 일본지리교과서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오쓰키 슈지는 물론 메이시시기 일본 정부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배상미는 임화의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의 통속소설론과 문학사론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임화의 신문학사론은 서구 문예사조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식민지 조선의 문학도 변화해 간다고 설명한 것이었는데, 이 방법으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통속소설이 성행하게 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는 조선 근대 문학의 발전 과정 초기에는 “정신적 준비”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저널리즘을 문학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속소설이 성행한 이유를 설명한다. 임화의 통속소설 분석은 1930년대 출판환경이 식민지 시기 문학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허민은 「보청기」·「명동부루스」·「성난 휠체어」·『수레바퀴 속에서』 등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소설들을 분석하며, 정치적 주체의 다양한 형상들이 소설속에 출현하게 된 원인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은 대학생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변혁의 인격적 담지자들만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지 않고, 변혁을 ‘관망’하거나 투쟁 과정에서 ‘변심’하거나, 전망 상실의 ‘좌절’ 속에서 참여 자체를

망설이던 자들의 사연까지 형상화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6월 항쟁에 대한 세대인식의 격차가 반영된 것이며, 운동사적 대의가 일상의 정치로 다시 제기되는 사태라고 해석하면서 6월 항쟁과 체제 변혁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정무용은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인력개발 정책을 되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도입했던 지능·적성검사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인력개발은 인력 양성은 물론, 인력의 활용과 배분 및 보존을 고려해야 하므로, 1967년 과학기술처는 기능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객관적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기능검정 사업을 도입 확대하였고, 인간의 소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류하기 위해 지능검사와 적성검사를 도입했다. 저자는 이러한 인력개발 정책으로 인해 한 개인의 유용성이 객관적으로 측정되어 인간의 가치가 바로 그 쓰임새로 평가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랑은 CCM 가사에 나타난 [인생은 여행] 은유를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CCM 가사에서도 [인생은 여행]이라는 보편적 은유가 통용되고 있지만, 구성 요소중 '가이드'가 절대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길'이 가치 판단의 대상이며 이분법적으로 나뉜다거나 미래의 '목적지'와 관련된 표현이 절제되고, 현재와 관련된 '도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 있었다. 저자는 이를 통해 CCM을 소비하는 기독교 신앙인들 역시 보편적인 여행 은유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신앙관에 부합하는 나름의 인지 체계를 꾸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인지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언어와 인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영우는 계량화된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부사의 음운 감쇄 특성과 그 기제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대용량 음성 말뭉치를 활용하여 부사의 음운 감쇄 양상을 계량화한 후 언어 내외적 조건과 감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부사에서도 특정 음운이나 음절, 혹은 단어 전체가 약화, 변용 또는 탈락하는 감쇄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사의 음운 감쇄 현상은 문법 범주 및 단어의 출현 빈도와는 관계가 없고 담화표지로의 문법화 진행 여부에 따라 경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우봉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역대 금석문을 서필자, 편명, 서체, 품평 및 소재지 등 총 158 항목에 걸쳐 기록하고, 150여 명이 쓴 금석문 글씨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적어 놓고 있다.『임원경제지』『이운지(怡雲志)』에 일부 수록되어 그 존재가 알려졌었는데, 이번 소개를 통해 그 온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동국금석평』뒤에 이덕무의『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과 관상용 비둘기에 대해 다룬 유득공의『발합경(鵓鴿經)』, 작자 미상의『남방이목부』(南方異木簿)가 함께 필사되어 있어 18세기 학술사와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민족문화연구』제87호에는 특집 구성이 빠지긴 했지만, 구결자료 해독 및 어휘사, 인지 언어학과 음성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의 어학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었다.『민족문화연구』편집위원회는 한국학 관련 여러 분야를 포괄하면서도 한 분야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소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